

지장행자의 길 가립니다 (하)

- 현대불교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수상작 -

총화종 총무원장상 / 김남기 (강원도 원주시 학생동)

선배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게 됐지만, 출근하기 전 10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은 지장기도 회향일이 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하루라도 빨리 출근해야 한다고 하면 퇴근 후에 기도를 해서 회향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무사히 원만 회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 절에서 기도하기가 여간상 어려워져서 일제와 회향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하며 오가는 차안에서 등 시간이 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천수경>의 '정구업전언'부터 '개법장전언'까지 하고서 <지장경>을 1품부터 13품 까지 1독을 하고 발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장보살 정근을 천주를 10번 돌리면서 1만 번하고 그 다음에 다라니를 10번 이상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하고서 회향을 합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걸어가면서 아니면 차안에서 등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구에 받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70여개의 불교 카페에 가입을 해서 신행수기도 올리고 부처님 말씀도 전하면서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신행단체에서 포교부장의 임무를 맡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가사외한 경험을 한 내용이 많이 있으나 한정된 지면인자라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올리고 이 보잘 것 없는 글이 언연 있는 많은 불자들에게 발심하고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 가장 큰 꿈이 있다면 작고하신 외할머니를 위해 절을 지어서 은혜에 보답하고 종단에 시주를 하는 것이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포교사가 되어 설법 제일 부루나 존자님과 같이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를 누비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생과의 인연을 마감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아닌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신의 업장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지 않고는 소원성취는 물론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요.

법력이 높은 선지식을 만나서 좋은 기도를 받으면 전수받아 열심히 기도정진을 하면 업장소멸이 빨라지고 소원성취도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장



그림 · 문병성

취직 후에도 기도는 생활의 큰 부분

70여 불교카페 가입하고 포교에 열심

“일심으로 기도하면 소원성취 되리라”

혹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만 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한번쯤은 그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다른 아닌 자신의 전생 업장 때문에 현재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되면 마지막에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기도와 수행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신심을 갖고서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한다면 소원성취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는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를 권해드리고 싶고 지장기도야말로 업장소멸은 물론 소원성취를 빨리 이룰 수가 있고 성불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자세를 올바르게 갖추고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체의 의심을 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매달려야 하며 앞으로 서나 지장보살, 자나 깨나 지장보살, 꿈속에서도 지장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보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선지식들께서는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는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담긴 보시를 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

니다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진솔한 참회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참회와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한 다음 보시를 통해 복을 지어가는 것이요. 그러다 복이 차차 쌓여지면 소원성취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기도를 하다보면 하기 싫어질 때가 더러 있고 또 장애가 생겨서 끈기를 꺾을 때가 있습니다. 즉 '마장'이라는 것인데 대개는 여기서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더욱 용맹심을 내서 기도정진에 몰두를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든다면 그때는 영험록과 소원성취 수기집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마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는 마장이 나타날 리가 만무하거든요.

우리 불자들은 너무도 조금하고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인연이 도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

의 노력과 신심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앞당길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최소한으로 천일기도는 해야만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의 본바탕인 마음자리는 상주불멸이라 생로병사가 없는 진여의 자리라 말할 수 있겠지요. 금생에 이 몸 받았을 때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애 인간의 몸을 받아서 수행정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에는 4만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생에 인간의 몸을 받았고 불연

과 전생에 지은 인연공덕으로 인해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전에서 지장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전생의 업장을 깨끗이 소멸하고 금생에 더욱 정진해서 소원성취와 복락을 누리시고 사후에는 아마타 부처님의 인도아래 반야옹선을 타고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56억 7천만년후에 도솔천에서 강림하시 화림원 옹화수 아래서 부처님이 되실 미륵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나 설법을 듣고 깨달아 우리 모두 중생고를 벗어나서 성불하십시오.

나무 중생도진 방증보리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꺽)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spark@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 수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구독안내 : 구독료 월 5천원 / 납부방법 : 1. 전화요금합산 2. 자동이체 3. 지로
신청문의 : 고객센터 02)2004-8211~2 / Fax 02)737-0697

지 사 명	활동 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영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청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지사	대전 / 옥천	해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100% 적중률의 육임천문학 CD 한 장이 직업에는 대박! 명예는 운세박사!

2006.1.15. 판매시작
▶ CD가격 : 150만원

선택? 누구든지 배움은 전혀 필요없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소자본 및 무점포 창업) 운세의 배움이 전혀 없어도 전문상담용 CD의 출간으로 구입 즉시 누구나 영입이 가능하고 CD내용의 실력은 20년 이상 운세상담소를 운영한 사람보다 실력면에서 월등히 앞서 가며 인간사에 필요한 운세의 모든 상담이 가능하고 적중률은 100%를 자랑한다.

선택? 운세의 상담은 21세기 가장 유망한 사업이고 육임천문학이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5,000년동안 육임학은 운명학의 제왕으로 불리고 있는데 배우기가 어렵고 난해하여 모두 중도에 배움을 포기했지만 우당 천문학연구소에서 몇 년간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육임학의 신비함과 천문학이란 과학적인 운세의 학문을 결합하여 CD에 수록된 내용을 통하여 그 날 말씀만 하셔도 100% 적중하는 운세의 새바람과 확실한 직업으로 각광받는다.

선택?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고 뛰어난 적중률의 운세프로그램은 없었다. 2005년 대한민국 운세의 년매출이 약 2조원이 된다고 언론 및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였고 역학상담소 및 무속인, 포교원들의 영입장소는 전국에 200여만 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90% 이상이 적중률에서 뒤떨어져 있어 육임천문학을 쉽게 배우기를 갈망해 왔는데 우당 육임천문학 연구소에서 개발된 CD가 확실한 내용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

CD 영입사원 모집 (월 500만원 - 1,000만원 가능)
우당 천문학연구소
연락처: 031)675-0202 / 032)345-3444

※ 육임천문학 CD는 정확한 적중률로 운세통신 사업에도 초강력 태풍을 몰고왔다. 통신사업 희망자 신청안내 : 2006년 1월 20일부터 - 2006년 2월 10일까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시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들깨, 흰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긴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악,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성품 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자수 더진 입장

간(肝)이 **간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을 끓여낸 뒤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든데 왕겨가 다 떨어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신마을 토종 (민속농원)